

教養教育과 教師教育

—美國 高等教育의 개혁동향 ②—

李 鉉 清

(캘리포니아 버클리大 高等教育研究所 客員研究員)

美國 高等教育의 개혁동향

1. 커리큘럼 改革과 7大 보고서
2. 教養教育과 教師教育
- 3.

1. 序 言

미국의 고등교육은 지난 호에 언급한 바대로 '80 년대에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80 년대의 미국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의 하나였으며, 사회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변화의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고등교육은 커다란 발전은 하지 못하였으나 의미있는 성장을 해왔다. 에컨대 고등교육 문호의 개방, 질적 성장, 다양성의 추구, 평생교육의 확충, 그리고 윤리와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국제경쟁력의 신장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왔다."

따라서 '80 년대의 이러한 관심들이 '90 년대에도 지속되면서 보다 구체화된 고등교육 개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에 대한 고등교육의 문호개방이라든지, 국제경쟁력 신장에 대한 교육내용 개혁이라든지, 도덕성과 윤리에 관한 보다 공개적인 논의 등이 구체화된 고등교육 개혁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이 사회·경제·정치·문화적인 요소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複合體(melting pot)라는 점에서 사회적 책무성과 효율적 지도력(effective leadership)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동향 중에서도 외부적 개혁보다는 내부적 개혁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미 언급된 바대로 '90 년대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적 과제인 커리큘럼 개혁, 특히 教養教育과 教師教育의 중요성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교사교육 개혁과 일반교양교육 개혁을 다루고자 한다.

1) 윤리와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는 저지 권위와 캠퍼스내의 도덕성, 그리고 性도덕에 관한 것 등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oyer의 *College*나 J. Shedd의 *Tangled Hierarchies* 등을 참조.

2. 敎養敎育의 改革

교양교육(general education)은 미국 고등교육 개혁에서 가장 새로운 개혁의 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90년대는 미국 고등교육에서 敎養敎育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교양교육이 커리큘럼 개발에 있어 창의성과 의미있는 진전을 신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미국 고등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 식민지 시절에는 성직자와 법률가 양성이 고등교육의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대개 기술적 커리큘럼(prescribed curriculum)과 고정커리큘럼(fixed curriculum)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869년의 Charles Elliot의 선택과목체제(elective system)의 도입, 1909년의 Abbott Lowell의 배분체제(distributive system)의 도입이 있는 후 교양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즉, 중핵커리큘럼으로부터 학생들의 완전한 자율선택에 의존하는 기술적 배분 커리큘럼(prescribed distributive curriculu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 人文社會大學들의 전문교육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전문기술교육에 등록하는 학생수가 많아지면서 敎養敎育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다. 특히 Boyer와 Levine(1981)이 지적하듯이 고등교육이 지나치게 도구화되면서 교양교육의 필요성이 절증되어 왔다.²⁾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교육을 받는 젊은 이들에게 도덕적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新나르시즘(new narcissism), 新고립주의(neo-isolationism), 직업교육주의(vocationalism) 및 과도한 전문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1990년대에 교양교육 개혁의 주된 목표는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실제적으로 개혁하고 실천토

록 하는 데 있다 그 세부 개혁목표는 Gaff(1989)의 주장에서 잘 나타나 있다. 즉, ① 기존의 교양교육의 폭을 확대하여, 대학교육과 캠퍼스생활 전반에 적용토록 하기 위하여, ② 보다 많은 대학들로 하여금 교양교육 개혁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③ 교양교육 개혁을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등의 개혁목표를 두고 있다.³⁾

교양교육의 추세를 볼 때 1960년대 이후 교양교육은 관심 밖의 영역으로서 인식되어 온 게 사실이며, 1945년 하바드의 보고서 이후 1977년 '카네기 연구'와 1979년의 '중핵커리큘럼에 관한 보고서' 등에서 교양교육의 요소와 '교육받은 인간'(educated man)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다.⁴⁾

특히 '80년대에 들어서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적으로 교과과정의 개혁이나 필수과목으로 책정되는 실

〈표 1〉 제시된 교양교육 커리큘럼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문화와 문명	문화와 문명	문화와 의례문명	
I 문명의 기원 (3시간)	III 서구문명 (3시간) (지속과목)	V & VI (6시간)	
II 서구문명 (3시간)	IV 미국의 문명 (3시간)	사회과학과 근대세계 (6시간)	
수학의 개념 (6시간)	자연과학의 기초 (8시간)		
	외 국 어 (12시간)		
	1 학년과 2 학년		

2) Boyer, E.L.과 Levine, A.(1981), *A Quest for Common Learning: The Aims of General Education* (Washington, D.C.: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Gaff(1989)의 "General education at decade's end", *Change* 21(4) 참조.

4) 이와 관련하여서는 Feldman(1988)과 Watkins(1989) 및 Carnegie Study(1977) 그리고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1989)의 연구들을 참조.

천적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러 교양과목의 핵심내용과 종합적인 시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⁵⁾

특히 앞의 <표 1>에서 제시된 바대로 50시간을 설정해 대학교 3학년 과정까지 이수도록 제안하고 있다.

교양교육 개혁론자들은 교양교육의 결과에 대해 주목하면서 '90년대의 교양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양교육의 결과는 대학생들에게 삶의 철학과 지적 능력의 향상 그리고 사회적 쟁점에 대해 보다 진보적인 견해를 갖도록 능력을 신장시켜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물론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반론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90년대에 들어 교양교육의 보강과 개혁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양교육이 처해 있는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개혁 움직임은 교양교육이 전통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취약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개혁의 방향도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혁론자들이 주장하는 교양교육의 취약성은 ① 거의 모든 교양과목은 누구든 어느 시점에서든 참여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식 접근이고, ② 많은 교양과목은 내용과 과목에 이해가 걸린 많은 사회단체와 기관 및 이해집단 간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서 선정되었으며, ③ 교양과목은 전공과목에 비해 덜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인류의 지적 도전에 불과하다는 것 등으로 그 해결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0년대의 교양교육 개혁방향은 교양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行政體制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Levine, 1989). 교양교육 개혁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조직체와 행정체계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어떤 한 단위나 영역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대학 전체적으로 확대된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설정이 요구된다.

②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위한 실천계획이 확고히 정립되어야 한다.

③ 교양교육을 위한 중핵커리큘럼의 설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커리큘럼은 인간의 감성과 정서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인간의 삶의 쟁점을 다루는 내용이어야 한다.

④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은 기술교육, 지역사회중심교육, 그리고 직업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식 또한 재고될 필요가 있다.⁷⁾

⑤ 4년제든 2년제 대학이든 간에 교양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수들도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워크숍, 특강 및 기타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⁸⁾

⑥ 대학 자체뿐만 아니라 대학외의 관련자들에게 대해 교양교육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혁의 방향은 대학교육이 단순한 학점 이수나 직업준비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대학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념의 시기'(belief period)인 이 기간 동안 인간 진보와 개혁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教師教育의 改革

1980년대는 教師教育의 改革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기였다.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수백 개에 이르는 교사교육 개혁을 위한

5) *50 Hours: A Core Curriculum for College Students* (1989) 참조.

6) 이와 관련하여서는 Bowen(1977), Winter(1979) 그리고 Astin(1977)의 연구 결과들을 참조.

7) 미국 1,200개 2년제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1/2의 1~2학년 학생들이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으나, 36% 이상이 부적절한 교양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8) 미국고등교육학회에서는 1988년과 1989년 교양교육에 대한 특집을 다루고 있는데, Patricia Hutchings의 보고서를 참조 바람.

입법 조치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Hammond와 Berry(1988)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46개 주에서 교사자격증시험을 실시하거나 교사교육과정에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27개 주에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평균점수나 시험성적 및 학업성취 수준을 입학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2/3에 해당하는 주들이 교사자격증 취득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대개 교양교육 학점에 대한 취득 규정, 전문교육과 관련된 취득 규정 및 특수한 과목의 이수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특수한 과목은 약물남용이라든지 성교육 등의 훈육과 관련된 과목으로서 교사의 학생지도능력의 신장을 위한 조치이다.

미국 고등교육 개혁 중 교사교육 개혁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① 교사들이 처하고 있는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 ② 교사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내용, ③ 교사교육의 제도적 개혁 내용 등으로서 미국 고등교육 개혁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들이 당면한 문제는 여러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교사교육 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⁹⁾ 우선 교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몇 가지로 요약·정리될 수 있는데 대개 다음과 같다.

- ① 동료 혹은 교장과의 친화, 즉 類親의 문제
- ② 학생들의 통제와 훈육
- ③ 학부모와의 관계
- ④ 학생 학업성취수준의 향상
- ⑤ 학급이나 학교 경영
- ⑥ 교사의 보수

이와 같은 교사의 당면문제들은 교사교육 개혁에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교사가 안게 되는 스트레스의 해결방안이 교사교육 개혁의 중요내용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교사는 전문직으로서 '인간본위의 전문직'(people-oriented profession)이기 때문에

교사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의 교사교육 개혁동향은 교사의 需與와 供給에 관련된 것이다. 교사의 수급과 관련된 개혁은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나 문제시되어 왔지만, 근래 미국에서는 이것이 중대한 개혁의 안건으로 떠올랐다. 특히 교사의 자질문제와 결부시켜 볼 때 교사의 수요-공급 문제는 더욱 중대한 과제가 된다.

더구나 우수한 학생들이 교사교육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의 내용은 물론이러니와 장기적인 수급계획도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를 통틀어 삼백만 명에 이르는 교사들을 충원하고 관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교생실습과 교사교육의 質 관리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 수요와 공급에 관한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입학자격을 강화하고 고임금이 보장될 때, 교사의 부족현상이 감소되고 敎授專門職에 대한 전문성 자체가 신장된다. 특히 근래 들어 교사의 부족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수학, 과학, 외국어, 그리고 특수교육 교사의 부족현상은 여전하다. 이뿐만 아니라 각 주에 따라 혹은 동·서부의 지역에 따라 부족현상에 편차가 있고, 소수민족계 출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도 敎師의 不足現象이 심한 편이다(Kemper, 1987; *Education daily*, 1987).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예상되는 교사의 부족현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교육에 대한 개혁동향 역시 어떻게 하면 교사와 교직(teaching profession)에 대한 선호수준을 높일 것인가와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있다.

근래 교사교육 개혁운동은 기존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주요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교육요건을 강화하여 교사교육의 질을 향

9) Cruickshank, D.R., and Kennedy, P.(1983), "The other side of the desk: Stages and problems of teacher develop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3(3), pp.251~257 과 Kleine(1984)의 "Teacher Moonlighting", *Phi Delta Kappan*, 65(8), pp.553~558 참조.

상시키려는 것과 실천적 교수(practice teaching)라 할 수 있는 이론과 실재를 겸비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¹⁰⁾

이러한 개혁목표를 달성키 위해 실제적이고 의미있는 경험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사준비교육기관이 대학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실제 학급에서 행하여야 할 내용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교사준비교육내용과 함께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의 지나친 관료체제적 특성을 완화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의 과제들은 교사교육 개혁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데 공립학교 수준의 영향 또한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교사교육 개혁의 기본방향과 관련한 중대한 보고서들의 주요 골자를 정리해 봄으로써 教師教育改革의 기본방향을 알 수 있다.¹¹⁾

교사교육 개혁의 방향을 설정해 준 것으로는 우선 카네기 재단의 Carnegie Forum의 보고서를 들 수 있는데, 이 보고서는 *A Nation Prepared: Teachers for the 21st Century*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직 교직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여건 등을 심의할 국가위원회의 창설이 필요하다.

② 전문교사들이 교수할 수 있는 전문적 환경(professional environment)을 고려하여 학교체제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③ 교직체계를 재조직하고 주임교사 등의 자격여건과 능력을 신장시켜야 하며, 특히 학습과 교수에 대한 여건을 강화시켜야 한다.

④ 예능과 과학 영역의 교직에는 교사교육에 참여하기 전에 최소한 학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⑤ 체계적인 교수(teaching)지식을 위한 새로운 전문 커리큘럼을 교육대학원 과정에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⑥ 소수민족계의 교사직 지원을 신장시켜야

한다.

⑦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교사들의 유인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과 서비스 및 지원요원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⑧ 교사의 봉급과 승진기회 등에 있어서 다른 직종과 견줄 수 있는 수준까지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교사직을 위한 준비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자격증의 요건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사교육 개혁의 주된 동향의 하나인 홈스그룹(The Holmes group)에서 제시된 보고서에서도 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소위 *Tomorrow's Teachers*라는 것인데 5단계의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① 교사교육을 지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② 교사의 지식, 기술 및 참여와 교육, 자격 및 직업수행 간의 차이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③ 교사직에 봉사하기 이전에 시험과 준비교육을 통해 필요한 자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④ 교사교육을 준비하는 대학과 지역사회학교 간의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⑤ 학교를 교사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더욱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장소로 개선시켜야 한다.

따라서 홈스그룹의 보고서에서도 교사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教師의 전문적 위상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몇 개의 보고서와 개혁의 그룹들이 있으나 미국 고등교육에서 교사교육의 개혁에 주도적 役割을 수행하고 있는 集團은 '홈스그룹'과 '카네기포럼'이라 할 수 있다.

교사교육 개혁의 이러한 방향들을 정리해 보면 효율적인 개혁운동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이 또한 필요하다.

① 교사교육 개혁은 政策, 行政 및 實踐의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여러 改革集團간에 상호협력하여 지속적인

10) 이와 관련하여서는 1987년 12월호 『교육개발』에 기고된 필자의 "신교사교육운동"을 참조 바람.

11) 윗글 참조.

로 진행되어야 한다.

③ 최소한의 능력배양보다는 지속적인 최상의 요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④ 교직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각 대학의 사범대학이 교사교육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⑥ 지속적이고 끈기있는 개혁의 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들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각 주의 지사들은 물론 교육자들의 협력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89년 부시 대통령에 의해 소집된 각 주지사들의 교육에 관련된 모임인 '교육정상회의'(educational summit)가 좋은 예라 하겠다.

4. 結 論

이 글에서는 주로 人文敎養敎育과 敎師敎育의 개혁동향을 다루어 보았다. 이 두 영역의 개혁은 지난 호에 언급된 커리큘럼의 개혁과 7大報告書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大學敎育의 機能 중에서도 全人敎育이 강화되고 있다는 시사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初等敎育에서부터 大學敎育에 이르기까지 全 敎育過程에서 敎育의 質을 強化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사교육의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 개혁동향임도 아울러 알 수 있다.

高等敎育의 개혁 이슈와 관련하여 볼 때 '80년대에는 고등교육의 개방과 기회 균등, 고등교육과 직업 간의 변화된 관계, 권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자원의 개발과 재정 문제 등이 핵심적 과제였다고 본다. 그러나 '90년대의 개혁동향에서 핵심적 과제는 교육의 질과 교육의 과정이며 이 중에서도 커리큘럼의 재정비와 질적인 강화, 그리고 교사교육과 교양교육의 재정립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입학과 학생복지, 그리고 재정과 효율적인 경영 등의 문제도 중요한 개혁의 내용에 속하지만 체제나 제도의 개혁과 병행될 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양적인 계획(quantitative planning) 이외에 질적인 계획(qualitative planning)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대로 교양교육의 개혁은 일반적으로 커리큘럼의 개혁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으며 大學의 행정적·체제적 지원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특히나 대학들은 학과간의 단절적 독립성 때문에 교양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한 편이 아니었다. 이 점에서 '90년대의 고등교육 개혁 중에서도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점은 과정(process)과 체제(structure)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大學은 시대와 지역, 그리고 고객(client)의 특성에 따라 그 운영과 내용이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미국이 현재 겪고 있는 '도덕적 문맹'(moral illiteracy) 현상의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교사교육의 개혁은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이 '70년대 이후 안고 있는 교사의 수급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개혁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80년 초 대두되기 시작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개혁요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은 유치원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위계와 과정이 있으나, 교육의 질과 관련된 개혁은 결국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교사교육에 대한 개혁은 '80년 초 시작된 초·중등교육의 개혁에 따른 파급효과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교사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 신장과 보수체제를 비롯한 社會的 位相에 있다고 본다면, 미국 고등교육에서의 교사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것만이 교사교육의 질과 수급계획의 적절성을 유지하는 관건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더해 카네기 포럼, 홈스그룹에서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개혁 자체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 고등교육 개혁동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체제의 개혁이라기보다는 체제(structure)의 개혁이고, 내용의 개혁이라기보다는 절차와 과정의 개혁이라는 느낌이다. 특히 커리큘럼의 개혁에 있어서도 기존의 커리큘럼 운영에 대한 재정비와 조정을 제안하고 있고, 대학의 사회적 기

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高等教育 개혁의 핵심적인 영역의 하나가 학습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learning)와 국가영역의 확충에 있는데, 교양교육과 교사교육의 개혁동향도 이러한 주류에 편승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¹²⁾

특히 교사교육의 개혁동향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의 하나는 교사라는 직업이 ‘관료체제 안의 전문직’이라는 인식 위에서 출발해야 하며, 자율성과 통제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

적하고 있는 점이다.

고등교육의 개혁은 그 영역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엘리트교육의 본질과 대중고등교육의 본질이 조화를 이룰 때, 質的 統制와 量的 伸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양교육의 개혁과 교사교육의 개혁도 이러한 점에 유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양교육의 개혁이 ‘人間化’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 교사교육의 개혁은 ‘人間化’와 더불어 ‘專門化’의 과제가 부여되기 때문에 더 장기적 개혁이 요청된다 하겠다. ■

12) 이와 관련하여서는 Thorsten Nybom(1991)의 *University and Society* (London: Jessica Kingsley)를 참조 바람.